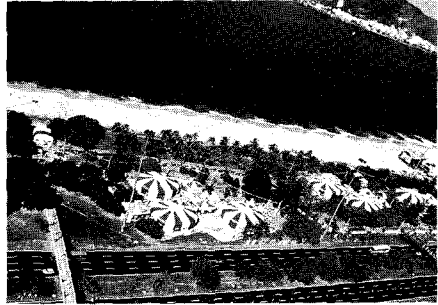


하늘에서 내려다본 플라멩고 공원▶  
여기서 지구환경회의, 글로벌포럼이  
열려 3만여명의 지구촌 환경가족들이  
모여들었다.



**보고 느낀것, 하나**

## 푸른 별, 지구를 살립시다

리우, 지구환경회의를 다녀와서

### 신화가 사라진 신비의 땅, 아마존

말로만 들던 브라질은 서울에서 서른  
시간이나 걸리는 먼 길이었다. 하루가  
넘는 긴 시간을 비행기 안에서 갇혀 지  
낸다는게 시간이 흐르면서 고문처럼 느껴  
졌다.

브라질로 가면서 브라질에 관한 몇 가  
지 예비지식을 떠올려보았다. 커피, 삼  
비춤, 축구, 열대우림의 아마존과 강,  
세계에서 빛이 가장 많은 나라, 또 우리  
나라의 이민을 받아준 나라 등 브라질에  
관한 상식들이 전부였다. 그리고 리오데  
자네이로에서 금세기 최대의 환경회담이  
열린다는 것이다. 길고 지루한 여행

### 글·사진/최도영

MBC-FM 프로듀서.

공해추방운동연합 지도위원.

민간환경회의 Global Forum 초  
청으로 한국민간환경단체 대표  
로 6월 3일부터 14일까지 브라  
질 리오데자네이로에서 열린  
지구환경회의에 다녀왔다.

끝에 도착한 브라질의 첫 인상은 슬냄새가 깔려 있었다. 나중이야 그 냄새가 사탕수수를 발효시켜 만든, 자동차 연료인 메탄올에서 난다는 걸 알았다.

이번 지구환경회의에는 170여개 나라의 정상들과 3만여 명의 민간환경단체 회원들이 리우에 모였다. 1972년 스톡홀름에서 민간환경회의가 열린지 20년되는 해에 열리는 지구정상회담과 글로벌 포럼에 참가한 사람들의 발걸음은 분명 가볍지 않았을 것이다.

지난 20년 동안 지구는 환경오염으로 신음하고 있다. 물과 공기가 적당히 있고 온도가 생명체가 살기에 알맞는 별이 어디엔가 또 있을거란 증거는 아직 없다. 우주의 2000억개의 별 중에서 지구만이 생명체를 갖고 있는지도 모른다. 금성은 이산화탄소가 많아 온실효과로 너무 뜨겁고 화성은 밤낮의

기온차가 너무 커서 생명체가 살 수 없다. 태양을 돌고 있는 9개의 행성 중 지구만이 태양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어 많은 생명체들이 생겨나고 진화해 오늘에 이르렀다고 한다.

### 우리 환경 우리 손으로

지금 54억 인구가 살고 있는 푸른 행성이 탄생한 게 46억년 쯤 되는 걸로 추측된다. 지구상에 인류가 등장한 건 훨씬 뒤의 일로 200만년 전의 일이다. 만약 1월 1일 아침에 지구가 태어났다면 인류가 지구상에 처음 등장한 건 12월 31일 오후 쯤 된다. 이렇게 긴 지구역사에서 한 순간에 불과한 시간에 인류는 지구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지구는 파멸의 길로 접어들었다고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 벌써 불길한 징조들이 속속 나타나고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3국에 걸쳐있는 이과수폭포 300여 개의 크고작은 폭포가 장관을 이루고 있다. 자연보호의식이 강한 세나라는 조그만 매점 두개 말고는 어떤 편의시설도 만들지 않고 보존하고 있다.



있다. 지구기온 상승과 기상이변, 오존층파괴, 지구사막화, 해수면 상승, 생물의 멸종 등은 인류의 생존과 번영을 가로 막는 장애물들이 될 것이다.

###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환경회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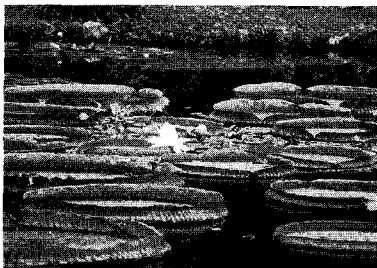
지구정상회담은 시작도 하기 전에 빠그덕거리기 시작했다. 특히 부시 미국 대통령이 이번 회담에 불참할 것이란 소문이 나오면서 회담의 무용론까지 제기되기도 했다. 전세계 인구의 5퍼센트인 2억 5천만명이 전세계 에너지의 4분의 1을 소비하는 나라 미국이 불참할 경우 환경회의는 맥빠진 회의가 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에 부시 대통령의 참석여부에 관심이 쏠려 있었다. 세계 여론과 선거를 의식한

부시 대통령은 리오행을 단행했다. 리오에서 33시간을 머문 부시 대통령은 처음에 반대해 왔던 기후변화방지협약에는 서명하고 생물종다양성 보전조약에 서명을 거부했다. 미국의 입장이 자기들의 잣대에 따라 멋대로 바뀌면서 분노의 함성이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부시 고 홈”이란 현수막이 곳곳에 내걸리고 6월 12일에는 지구정상회담이 열리는 리오센트로 앞에서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다. 지구정상회담은 환경오염에 대한 선진국과 개도국 간에 책임론으로 공방전을 펼쳤다. 개도국들은 선진국이 너무 많이 먹고 쓰기 때문에 지구환경이 파괴됐다고 선진국을 성토했다.

### 병든 지구를 살립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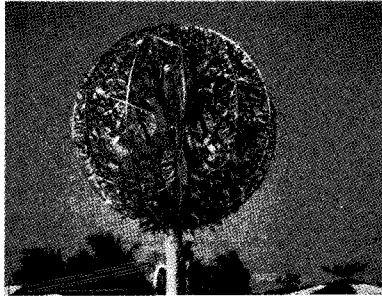
이번 환경회담은 정부단체들로 이루어진 지구정상회담과 민간환경단체 대표들의 글로벌 포럼으로 구분된다. 리오센트로에서는 지구정상회담이 열렸고, 고색창연한 글로리아 호텔과 플라멩고 파크에서는 민간환경회의가 열렸다.

민간인들은 지구정상회담에 압력을 가하기 시작했고 세미나, 미술, 음악, 토론회 등을 통해 지구



아마존의 연꽃 빅토리아 해지  
지름이 1m가 넘는 것은  
어린이가 올라타도 끄떡없이 버틸 정도로 크다.

플라멩고 공원에 설치된 생명의 나무  
54억 전지구인이 지구를 보전하자는 염원을  
담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환경의 위기를 알리고 전지구의 동참을 호소했다. 태평양상의 산호초 섬나라 사람들은 해수면이 상승하게 되면 불과 해발 5~6미터 밖에 안되는 자기 나라가 물속에 잠길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에 불안에 떨고 있었다.

기리바티, 조그만 섬나라, 어찌 보면 하찮을 수도 있는 이 나라는 지금 가장 절박한 상태에 놓여 있다고 관리는 설명했다. 부유한 국가들이 지구를 파괴한 댓가를 이들이 받는다고 생각하니 업보치고는 너무 가혹한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 지구의 허파, 생물종의 보고

“아마존을 보지 않고서는 지구 환경을 논하지 말라”는 이 말 때문에 아마존에 대한 유혹을 떨칠 수가 없었다. 지구의 산소공장이

니, 산소탱크니 늘 들어오던 말들을 확인해 보고 싶은 호기심이 솟아났다. 리오데자네이로에서 아마존의 거점도시인 마나우스까지 웬만한 국제노선과 맞먹는 5시간이나 걸리는 먼 거리였다. 서울에서 동남아 쪽 가는 거리니까 브라질의 국토가 얼마나 넓은지 상상이 간다.

아마존은 브라질 국토의 58.5퍼센트인 497만 평방 킬로미터로 남한 면적의 54배나 된다. 하늘에서 내려다 본 아마존의 열대우림은 녹색 양탄자 같았다. 이렇게 넓은 아마존은 볼리비아, 브라질, 콜롬비아, 에쿠아도르, 가나, 페루, 수리남 등 8개 나라에 걸쳐 있다. 그러나 아마존의 68퍼센트는 브라질이 차지하고 있어 브라질이 아마존의 대명사로 불리고 있다.

아마존은 이상향 엘도라도의 신



브라질 민간환경단체가 만든 푸른별 지구  
공해로 험뎠이는 지구실태를 상징하고 있다.

화가 서려 있는 곳이다. 16세기에 왕정의 질곡을 피해서 신대륙으로 이주한 사람들은 신대륙 어디엔가 자유와 평화가 있는 땅이 있을 것으로 믿고 아마존 탐험을 시작했다. 그러나 이들에겐 이상향 엘도라도 대신 말라리아, 황열병, 독거미 등이 기다리고 있었다. 더욱이 신대륙이라 아무도 없을 줄 알았던 아마존에 이미 주인이 살고 있었다.

2만년 전에 베링해가 육지로 이어져 있을 때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간 인디오들이 살고 있었다. 지금은 백인에 쫓겨 아마존 깊숙이 숨어버렸거나, 현대문명에 동화되어 가는 얼치기 인디오들이 살고 있다. 최근 브라질 정부는 인디오들을 개화시키기 위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지만 아직도 인디오의 숫자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브

라질 정부는 아마존에 먹을 것과 옷을 투하하고 있지만 이런 인디오 개화계획이 부질없는 짓이란 걸 요즘 깨닫고 있다고 한다. 자연에서 태어나 자연과 더불어 살다 자연으로 돌아가는 인디오들에게는 문명의 이기나 햄, 소시지 같은 문명의 찌꺼기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들인지도 모른다.

아마존에는 88만 종이나 되는 식물들이 살고 있다. 수많은 미생물, 어류, 동물은 아마존 생태계의 다양성을 이루면서 공존하고 있다. 특히 식물들은 의약품, 식량 생산, 첨단공업 등에 널리 쓰일 귀중한 미래의 자원보고로 떠오르고 있어 선진국들 간에 생물종을 확보하기 위한 치열한 전쟁이 한창이다. 미국이 생물종보전 협약에 서명을 거부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 인류를 역습하는 대자연

1840년에서 부터 1945년에 이르는 100년 동안에 포르투갈은 고무 나무에서 많은 부를 얻을 수 있었다. 20세기 들어서면서 전쟁으로 고무 수요가 크게 늘어나게 되고 그래서 마나우스는 고무전성기를 맞게 된다. 그러나 아마존에만 자라던 고무나무가 말레이시아에 옮겨 심어지면서 마나우스는 쇠락의 길을 걷게 된다.

현재 아마존은 금, 철광석, 가스개발과 화전농업으로 열대우림이 파괴되고 있어 이대로 가다가는 지구의 산소공장이 문을 닫는게 아닌가 걱정하고 있다. 아마존은 세계 최대의 산소공장이다. 세계 산소의 35퍼센트를 생산해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균형을 유지시켜 주고 지구가 더워지는 걸 막아 주고 있다. 아마존 1헥타르의 삼림은 한 시간에 2.8킬로그램의 탄소를 광합성으로 고정화시켜 주기 때문에 54억 인구가 숨쉬면서 먹고 살 수 있다.

마나우스에서 열대우림으로 들어가는 길은 육로 개설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수로를 이용해야만 한다. 마나우스는 아마존의 시발점으로 푸른 빛의 아마존 솔리몬과

검은 빛의 아마존 니그로가 합쳐 본격적인 아마존 강이 된다.

## 헌법이 통용되지 않는 아마존

마나우스에서 두 시간 반 정도 배를 타고 올라가면 원주민 마을이 나타난다. 이들은 주로 만주오카라는 작물을 재배하면서 고기를 잡아 식생활을 해결하고 있다. 나무에 불을 질러 화전을 일궈 농사를 짓다가 땅심이 다하면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이동식 화전농법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원주민들의 화전농법보다 브라질 정부나 재벌, 기업에 의해 이뤄지는 벌목, 도로, 공장부지, 목장건설 등으로 훼손되는 열대우림이 훨씬 많다는 점이다. 같은 새나 짐승을 계속 잡지 않는다는 인디오의 삶의 방식이 진정한 자연보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인류가 우주선에서 지구를 바라보게 된 순간부터 지구가 푸르다는 걸 알게 되었다. 이제 지구를 보전하기 위한 역사적인 발걸음을 내디뎠다. 우리 후손들에게 훌륭한 조상으로 칭송받을 수 있도록 지구환경보전에 전 지구인이 참여해야 한다.